

청심중 입시의 첫 관문은 서류전형이다. 영어실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인증시험과 내신, 수상실적, 리더십, 예체능 증빙 자료 등이 제출서류다. 1차를 통과한 학생들은 2박3일 동안 치러지는 심층면접을 봐야 한다. 청심중의 입시배점 기준 등 공략법은 베일에 가려져 있어 수험생 학부모라면 누구나 목말라하는 정보다. 지난해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에서 수석 입학한 두 학생의 포트폴리오를 통해 간접적이거나 합격 전략의 밑그림을 그려보자.

과학경시대회 실적·사교성으로 다져진 리더십 강조

■ 일반전형 정연호 (14·귀인초교 졸업)

물리학자가 꿈인 연호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일찌감치 프린스턴대 유학을 목표로 세웠다. 한국과학창의력 경시대회, 한국학생과학올림픽 자연 관찰탐구대회, 전국학생 발명품경진대회 등 초등학교 때부터 과학경시대회라면 규모를 불문하고 꾸준히 출전해 실력을 인정받았다. 연호는 다니고 있던 영어학원에 청심중 대비반이 만들어지면서 청심중을 처음 알게 된 경우다. 이타적 품성을 지닌 국제지역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는 청심중의 이념이 마음에 들었다. 연호와 부모님은 입학원서 접수 마감을 며칠 앞둔 상황에서 부랴부랴 준비했다. 대내외 수상실적을 물론 TOSEL Jun ior 1급 인증서, 5학년 때 다닌 안양시 영재교육원과 6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다닌 아주대 영재교육원 경력을 기재했다.

연호는 학교 공부뿐 아니라 사교성으로 다져진 리더십을 대외활동 경력을 통해 강조했다. 초등학교 2학년부

터 줄곧 반장을 도맡아 했던 점, 6학년 때는 전교회장으로 뽑힌 이력을 내세웠다. 서류전형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며 연호가 가장 공을 들인 것은 체험학습 활동. 어머니 김보미(42) 씨는 “주말마다 가족끼리 박물관이나 생태공원 미술관 유적지 등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장소를 현장학습으로 탐방케 했다. 체험학습을 다녀오면 일기장에 그날 갔던 곳에 대한 정보와 느낌들을 적게 했다”고 말했다. 연호는 모든 체험학습에서 찍은 사진들을 정리해 파일을 만들었고, 김 씨는 연호를 글로벌 리더의 자질을 갖춘 아이로 키우려고 노력했다는 내용을 학부모 소개서에 썼다.

1차 서류전형에 통과한 연호는 곧장 2박3일 합숙 심층면접을 준비했다. 신문의 1면을 열심히 읽고 청심중의 기출 문제를 뽑아 꼼꼼하게 살펴보았다. 그러나 청심중의 기출문제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연호는 합숙면접 직전까지 과학이나 역사와 관련된 책을 읽었다.

2차 면접 중 학업면접은 모두 구술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필을 쓸 수 없다. 아이들은 주어진 문제지를 10분 정도 본 다음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데 수학 과목에서는 A4용지, 칠판이 무작위로 주어져 풀이과정을 밝히는 도구로 활용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A4용지, 칠판 팀과 달리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 팀도 있었다.

연호의 기억에 남는 것은 인성면접. 몸에 전자제품을 지닌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10분 정도 간략하게 치러졌다. 전자시계를 손목에 차고 있던 연호 역시 면접대상자였다. ‘손목시계를 왜 차고 있느냐’는 질문에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선생님의 특별한 지적이나 감시가 없어 인성면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학교측에서는 학생 전원이 기숙사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2박3일 동안 학생들을 면밀하게 살펴본다.

면접을 볼 때 많게는 5시간까지 기다리게 되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시간

을 보내는지 새로 만난 친구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등을 살펴 사교성이나 대인관계를 채점한다.

“평일에는 국사와 국어를 제외한 과목이 영어수업으로 이루어져요. 80% 정도는 잘 알아듣지만, 20%는 조금 버거워 쉬는 시간에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어요. 자율학습시간에는 수업 내용을 다시 훑어보며 그날그날 복습을 해요.”

연호는 락밴드 보컬 수학 토론 등 4개의 동아리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푼다. 주말에는 집에 돌아와서 한국물리올림피아드 준비를 위해 와이즈만학원만 다닐뿐 내신관리를 위한 사교육은 따로 받지 않는다. 청심중의 합격비결을 물었더니 연호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성적보다는 성격적인 면이 참 중요했어요. 1차 서류 전형에서 제가 강조했던 것이 사교성과 리더십이고, 2차 면접은 인성을 보거든요.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는 부분에서나 모두 예민해지는 시험기간에도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면 합격해도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아요.”



초등 2학년 때 미국행... 낙천적 성격 적응력 뛰어나

■ 영어우수자 특별전형 신예은 (14·호수초교 졸업)

초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무렵 예은이는 아버지의 MBA학위 취득을 위해 가족 모두 미국 버지니아주로 2년간 나가게 되었다. 갑작스러운 미국 행에 어머니 서승주(40) 씨는 딸아이가 영어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민이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성격덕에 잘 적응해줬어요.” 예은이는 공립학교인 베이커버틀러 학교에서 유일한 한국인이었지만 발음교정을 해주는 친구들과 금세 친해졌다. 빠른 적응력을 바탕으로 예은이는 미국에서 꾸준히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했다. 귀국한 뒤 영어에 대한 감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미국 친구들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영어학원에 다녔다.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때 청심중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접한 학교의 분위

기와 수업 커리큘럼이 마음에 들었다는 예은이는 곧장 입시 준비에 들어갔다. 회화에는 익숙했지만 문법이 약해 해커스 문제집으로 TOSEL 공부를 했다.

TOSEL Intermediate 2급, 학생과학탐구올림픽고양시대자연관찰은상, IEWC(국제영어글쓰기대회)본선 진출확인서, 베이커버틀러 학교 담임선생님의 추천서, 문인협회 백일장대회 장려상 미국 미술대회 입상 실적을 모두 모았다.

예은이는 2박3일 동안의 면접 기간 동안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한 기숙사 생활이 즐거워 함께 웃고 떠들며 수학 여행에 온 것처럼 들뜬 기분으로 면접을 보았다고 했다. 학업면접은 전반적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수

준에서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들로 그리 어렵지 않았다. ‘기다란 원형과 호리병을 두고 그래프를 보며 물이 들어가는 시간을 예측하라’는 문제를 무리 없이 풀어냈다. 일반전형과 공통으로 치러지는 영어 에세이에서는 ‘청소년기와 관련된 텍스트를 읽은 다음 텍스트를 덮고 줄거리를 말해 보라’는 내용이였다. 특별전형만 치르는 영어토론면접은 10명이 한 팀을 이루어 보았는데 ‘살인사건에서 범인이 누구인가’를 밝히는 논제가 주어졌다. 각자 3분씩 자신의 의견을 말한 다음 20분 동안은 자유로운 토론 시간이 주어졌다. 아이들은 서로 다른 범인을 지목했다. 정해진 답은 없었지만, 자신의 생각을 논리 정연하게 영어로 토론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학교 기숙사 생활에서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너무나 즐겁다는 예은

이는 이번엔 처음 시험을 치른 다음 고민이 생겼다. “친구들이 모두 공부를 잘해서 고민이 많아요. 그래도 실력이 뛰어난 학생들 사이에서 잘해야 정말 공부를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평소 방과후 시간, 자율학습 시간에는 도서관에서 자습을 하는데 교과서나 수업시간에 필기해둔 노트를 꺼내어 다시 정리하며 요약본을 외운다. 연필로 새까맣게 필기하고 빨간 펜으로 중요한 것만 별표를 그린다. 취약한 수학과목을 집중해서 공부하기 위해 예은이는 ‘수학 9-가’라는 동아리활동에 열을 올린다. 수학 공부로 쌓인 스트레스는 일주일에 한번 두 시간씩 진행되는 ‘1인1악기’ 프로그램에서 플루트를 불며 털어낸다고, 당장의 목표는 청심국제고 진학이라고 말했다.



청심중 심층면접 평가의 핵심은 크게 3가지다. 영어수업을 무리 없이 따라올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갖췄는지, 초등교과 수준의 수학 역사실력을 갖췄는지,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자기통제능력과 적응력, 원만한 성품을 갖췄는지 정도다. 지난해 청심중 심층면접에 출제됐던 인성·학업·영어면접 주요 문제와 DYB 최선어학원의 이해림 국제중 상담팀장이 전하는 간략한 공략법을 소개한다.

2009학년 청심중 심층면접 기출문제 및 분석

인성면접

지난해부터 대폭 축소 특별전형자 중점 실시

2008학년까지 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인성면접이 지난해부터 대폭 축소됐다. 일반전형에 응시했던 지원자들은 8~9명씩 한 방에 배정됐는데, 그 중 일부만 불려가 인성면접을 치렀다. 한 방에서 2~3명이 불려나간 경우도 있었고, 어느 방에는 아무도 불려나가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심층면접 중 인성면접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 온 지원자들이 “왜 인성면접을 보지 않느냐”고 문자 학교측 관계자는 “불려가지 않은 지원자들은 굳이 인성면접을 볼 필요가 없다”고 답한 걸로 전해졌다. 특별전형에 응시한 지원자들은 같은 방에 배정된 8명 중 5~6명이 인성면접을 봤다”고 전했다. 일반전형에 응시한 지원자보다는 특별전형으로 응시한 지원자의 인성면접 진행이 많았던 것.

외국에서 오랜 기간 지낸 아이들이 같은 특별전형이지만 특례입학보다 더 많이 인성면접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인성면접은 본관 면접실에서 이뤄졌으며, 한 명씩 방에 들어가 두 명의 면접관으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면접시간은 5분 이내이며 질문은 2개 정도. ‘체력이 부족해 보이는데 청심의 기숙사 생활을 어떻게 버틸 수 있느냐’는 질문은 아직 어린 학생들이 단체로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인성면접 기출문제에서 매년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다. 몸에 전자제품을 지닌 지원자에게는 “왜 ~(시계)를 차고 있느냐”는 등의 질문이 주어졌다.

-> 무엇보다도 기숙사 생활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체력이 부족해 보이는데...’와 같은 조건이 붙는 경우 ‘독립성’이나 ‘자기 관리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근거를 이야기하면 좋다. 공동생활에 대해서는 친구들과 얼마나 원만하게 지낼 수 있는지, 배려심이 많은 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이와 같은 인성을 드러낼 수 있는 자신의 경험담을 말한다면 더없이 훌륭한 답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어면접

리더십·학교 지원 동기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1) 2009학년 일반전형에서는 ‘학교

회장이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자질을 말해 보라’ ‘캐나다에서 온 친구가 이 학교에 찾아왔을 때 자랑하고 싶은 것 세 가지를 말해보라’는 주제가 주어졌다. 첫 번째 질문은 리더십을 평가하는 주제였고, 두 번째 질문은 지원자가 본교에 대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와 진학에 대한 바람을 평가하는 주제로 예년의 출제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

-> 리더십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리더들이 갖춰야 하는 훌륭한 자질이 무엇인지 진솔하게 대답해야 한다. 무조건 ‘리더십’과 같은 큰 가치를 말하기보다는 성실성, 타인의 말을 귀담아 듣는 자세, 책임감, 봉사정신 등 구체적인 미덕을 짚어내는 게 필요하다. 누군가 스크립트를 써줘서 외운 것 같은 답변이나 너무 과장되게 꾸민 듯한 답변은 오히려 감점 대상이 된다. 학교 지원 동기에 관해서는 학교 진학에 대한 바람을 숨김 없이 드러내는 것이 좋다.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학교측에서는 청심중에서 청심국제고로 이어지는 장기적인 연계 커리큘럼을 구축해놓은 상태이므로 학교의 비전을 함께 만들어 나갈 학생들을 원한다. 진학 후의 세밀한 계획까지 체계적이고 명료하게 밝히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2) 역사 과학 사회 등 전문 지식과 결부시켜 지원자의 의견과 가치관을 평가하는 두 번째 인터뷰에서는 ‘베이비시터’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 특별전형 영어토론에서는 ‘범죄가 일어난 후 다섯 명의 용의자가 지목됐다. 다섯 명의 용의자 각각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범인을 찾아라’는 문제가 출제됐다. 용의자를 찾는 과정을 통해 지원자의 창의사고력 추리력 협동심 기발함 등을 두루 관찰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펼치는 debate 형식이 아닌 토론을 통한 협력능력을 평가하는 식으로 스타일이 바뀌었다.

-> 이 같은 질문에는 딱히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말하되 정확한 근거를 조리 있게 제시해야 한다. 근거를 제시할 때에는 풍부한 배경지식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질문을 받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순발력과 재치, 웅얼거리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근거를 펼칠 수 있는 자신감 있는 태도가 중요 평가 요소가 될 수 있다.

문장을 통째로 외워 짜 맞추기 식으

로 적용한다든지,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닌 다른 이에게서 주입 받은 내용을 읊는 식이라면 감점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

교과면접

해외파 반응 “어렵다” 특별·일반 문제 차이 없어

교과면접을 치른 지원자들의 반응은 상이했다. 국내에서 5, 6학년 교과과정을 이수한 지원자들은 이미 다 배

운 내용이라 어렵지 않았다고 말한 반면 해외에서 초등과정을 이수한 지원자들은 어려웠다는 반응이었다. 특별·일반전형 문제에는 큰 차이가 없었고, 학교측이 발표한대로 초등교과과정의 심화수준으로 문제가 출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학에서는 ‘나무 막대로 넓이를 구하는 법’ 과학에선 ‘브레드 보드(breadboard) 회로 적용문제’ 역사에서는 ‘조선 후기 계급의 구성 비율을 보여주는 그래프를 통해 계급 이동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현상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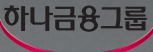
설명하라’는 문제가 주어졌다.

특례입학 대상자에게는 국어시험이 따로 실시됐다. ‘여러 개의 단어를 나열해놓고 두 묶음으로 나눈 후 나누게 된 공통점에 대해 말해보라’는 문제와 또 다른 단어를 나열해놓고 세 묶음으로 나눈 후 공통점이 무엇인지 말해보라는 식의 문제가 주어졌다.

/ 장은희 기자 blog.veritas-a.com/miner

2009학년 심층면접 기출문제

추가 자료 **veritas-a.com** 클릭 



피어라! 자연을 사랑하는 예쁜 마음



하나 자연사랑 어린이포스터그리기대회

▶ 응모주제: 자연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 참가자격: 전국 초등학교 재학생 ▶ 응모기간: 2009.3.16~5.6 ▶ 응모방법
 ① 개인전 응모 - 전국 하나은행 영업점 및 우편접수(그림 뒷면에 온라인 접수 후 출력되는 접수증 반드시 부착) ② 단체전 응모 - 미술
 지도교사가 단체전 참가신청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출품작(10점 이상)과 함께 제출 (홈페이지에 참가하면 반드시 작성 단체전 응모작은
 개인전도 자동 응모) ③ 우편접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당1동 1049-7 중앙대학교동창회관 2F 하나 자연사랑 어린이포스터 그리기
 대회 운영사무국 담당자 앞 ④ 참가신청은 하나 자연사랑 어린이포스터그리기대회 홈페이지(http://contest.hanabank.co.kr) ▶ 수상자
 발표: 2009.5.27(www.hanabank.com과 http://contest.hanabank.co.kr에서 동시발표) ▶ 주최: 하나은행 ▶ 후원: 환경부, 교육과학기술
 기술부 ▶ 문의: 하나 자연사랑 어린이포스터그리기대회 운영사무국 (02) 6911-6500 / e-mail : hanacontest@jungle.co.kr

